

'5·18 들불야학 엠티'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길 열렸다

광주시·서구·천주교·재개발 조합 4자 업무협약 보존 협력키로

윤상원 열사 '투사회보' 제작한 곳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활동하고 들불야학의 배움터였던 광주 서구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사업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서구,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4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아파트 보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문기정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시민아파트 '나동' 보

존 및 광천동 성당 들불야학당 복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구청은 사업시행인 가 등 행정처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광천동 성당 교리실 복원을 위해 협력하고, 조합은 보존에 대한 광주시와 서구,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총회에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들불야학은 배움에 목마른 노동자와 함께 공부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 1978년 8월 설립됐으며, 광천동 천주교성당 교리실에서 시작해 학생 수가 늘어나자 시민아파트로 학당을 옮겨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시민아파트는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거주한 곳으로, 박용준 등과 함께 5·18 당시 최초의 민중언론 '투사회보'를 제작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국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사연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1980년대 박관현 전남대 총

학생회장, 김영철 5월항쟁 기획실장 등도 시민아파트에서 활동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이었던 시민아파트는 지역 최대 규모인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도 포함되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철거 자리엔 53개 동 5611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광주시와 서구,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합이 보존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민아파트 3개 동 중 '나동'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최초 노동야학 무대이자 5월 민중항쟁의 흔적이 살아있는 역사 공간인 시민아파트가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철거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시민아파트 보존을 위한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지역내 위치한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과 광천동 성당 들불야학당 복원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서대석 서구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희중 광주대교구 교구장, 문기정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 급등에 화들짝... 민주당, 대대적 '민심 경청 프로젝트'

정권 재창출 위기감 고조

지역구별 간담회·현장 방문

"조국 논란 민심도 그대로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민심 잡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21%로 치솟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으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역민 목소리를 듣고 쇄신을 함으로써 정권 재창출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부터 광주 8개 지역구별로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개최하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송갑석 시장위원장은 27일 오후 광주 상무역 사거리에서 직접 민심을 청취한다.

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28~29일 지역구에서 민심 청취 행사를 연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개 지역구별 다중 이용시설 등에 부스를 설치하고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24일에는 김승남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민심경청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든 현장 행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며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theminjoo.kr)에서 별도로 의견을 접수한다.

송갑석 시장위원장은 "재·보궐선거 패배는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민심경청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새기고 또 새겨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시·도당은 프로젝트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하며 다음 달 1일 송영길 대표가 대국민 보고를 통해 권역별 취합 결과를 발표한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당 대표가 조국 논란 등 여권이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심 그대로 듣고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쇄신 없이는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다는 지도부 판단이 깔려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5개 권역별로 재보선 패인, 부동산 정책, 현 지도부의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사죄하고 5·18 추모제에 초청을 받는 등 5·18을 연결고리로 호남 민심에 다가가면서 민주당이 텃밭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47.9%에 그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며 지역 정세에 충격을 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靑 "중, 사드 때와 같은 경제보복 없을 것"

오늘 5당 대표 초청 방미 결과 설명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이 '포괄적 핵심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라며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한국 기업들이 44조원 투자계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적다"는 지적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SK, LG 기업인들을 공동기자회견에 초대해 '맹규'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라며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미 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등 보고할 사안이 많다"며 "5당 대표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꿔야 산다"...여 '빅3' 예능 출연

넥타이 등 스타일링 변화도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 주자들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격하거나 스타일링에도 부쩍 신경을 쓰면서 색다른 매력을 내세워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시도다.

우선 방송국 예능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쁘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내달 TVN의 새 예능 '꼭씨네 LP바' 출연을 거의 확정 지었다. 박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 아래 초대 손님 '인생 노래'를 공유하면서 삶의 궤적과 이상,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음악 토크쇼 '판도라'에 출연했고, 이 전 대표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폼'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외모 관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어느새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백팩' 스타일링을 위해 매달 한 차례 미용실을 찾아 뒷머리에 부분적으로 나고 있는 흑발을 희게 염색하고 있다. '다소 거칠다'는 이미지 보안을 위해 안경도 지난해 얇은 금속테로 바꿨다고 한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총리 출신이 주는 '권대 이미지' 탈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넥타이 셔츠 개를 돌려가며 사용했지만 최근 넥타이 여러 개를 추가로 장만했다.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넥타이 없는 캐주얼 차림으로 다닌다. 총리직을 던질 무렵엔 인생 첫 '피머'를 하기도 했다. 그 역시 주변으로부터 스타일링 조언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